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조선의 음악을 세운 박연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목표** : 조선의 음악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박연에 대해 안다.
주제 : 노력

핵심어 노력, 박연, 세종대왕, 편경, 아악, 향악, 제례악, 궁중음악, 전통악기

한국문화 **목표** : 조선의 궁중음악과 박연이 만든 악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요소 : 조선의 궁중음악, 편경

한국어 **목표** : 동사의 다양한 쓰임새를 배운다.
단어 : 불다
표현 : 피리를 불다.
나팔을 불다.
휘파람을 불다.
풍선을 불다.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조선의 음악을 세운 박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악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요. 모두 잘 알고 있네요. 피리, 거문고, 팽과리, 북 등이 있지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국가행사때 중국에서 들여온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명으로 악보를 정리하고 악기를 만들어 중국 음악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완성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만나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조선의 음악을 세운 박연’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에 박연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박연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악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피리는 늘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연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뜨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을 모두 잃은 박연은 너무나도 슬펐어요. 박연은 부모님 무덤 앞에서 그리운 마음을 담아 피리를 연주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구슬펠는지 산속 호랑이도 음악에 푹 빠져 박연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요.

어른이 된 박연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시험을 마친 박연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그때 궁궐에서 박연의 마음을 사로잡는 피리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연주는 처음 듣는구나.”

박연은 피리 소리를 따라 궁의 구석구석을 헤맸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연주하는 사람을 찾았지요. 그 사람은 궁에서 일하는 악기연주자였어요.

“와! 정말 멋진 연주요! 내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소?”



이야기 들려주기

그러자 연주자는 화들짝 놀라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피리는 저희 같은 사람이나 부는 것이예요. 높으신 선비님이 어찌 피리를 부시려고요. 게다가 감히 선비님을 가르치라니요!”

하지만 박연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부탁했어요.

“그러지 말고 제발 가르쳐 주시오!”

박연은 마침내 연주자한테 피리 부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연주자보다 더 멋진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나리는 모든 음을 금방 익히시니 정말 놀랍습니다!”

박연은 그 후로도 틈틈이 피리 부는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피리뿐만 아니라, 거문고와 비파 등 다른 악기도 배우고 익혔지요.

한편 과거 시험에 합격한 박연은 궁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왕자의 공부를 돕는 일이었지요. 궁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박연은 악기 연습을 했어요. 왕자는 그런 박연을 유심히 보았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자네는 정말 피리를 잘 부는구나! 음악도 두루두루 아주 잘 알고 말이네.”

왕자는 박연에게 덧붙여 말했어요.

“음악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도 아주 중요하대네. 특히 조상님을 모시고 기억하는 제사를 지낼 때도 꼭 필요한 게 음악이지.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내 가까이에서 꼭 일을 해주게.”

박연은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자의 마음을 알고 아주 기뻐했어요.

시간이 지나 왕자는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바로 세종대왕이었지요. 세종은 박연을 기억하고는 바로 불렀어요.

“박연,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궁에서 연주할 수 있는 우리의 음악을 만들어 보게. 연주할 때 모든 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네. 그러니 모든 악기의 중심이 될 만한 악기도 하나 만들게.”

박연은 세종의 말을 금세 이해했어요.

평소 박연도 세종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박연은 대대로 이어진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자료들을 살펴보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음과 정신을 담은 음들을 새롭게 만들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박연은 ‘편경’이라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쏟았어요. 편경은 음을 맞추는 데 중심이 되는 악기예요.

“전하, 편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사옵니다.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종 또한 최선을 다해 박연을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하! 편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옥돌을 구했습니다! 이제 명확한 음을 낼 수 있사옵니다!”

옥돌을 발견한 박연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걸음에 뛰어왔어요.

세종도 함께 크게 기뻐했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고생했다! 어서 편경을 완성해라!”

지칠 법도 했지만, 박연은 끈기를 가지고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이러한 박연의 노력 끝에 마침내 편경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연주해 보거라!”

박연은 세종이 보는 앞에서 편경을 연주하기 시작했지요. 세종은 음을 정확하게 듣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끝까지 다 들은 왕이 말했지요.

“한 음이 조금 높은 듯하구나.”

그 말에 박연이 편경을 살펴보았어요. 정말 음을 맞추는 옥돌 하나에 문제가 있었지요. 다시 고친 다음 연주를 하자, 세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음이 잘 맞구나. 참 수고가 많았다! 장하도다!”

박연은 궁중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을 정리했어요. 이로써 조선의 궁중음악은 한층 웅장하고 우아해졌지요.

또한 악기 연구도 꾸준히 했어요. 박연의 노력 덕분에 조선의 음악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박연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어떤 악기를 좋아했나요?

네, 피리였지요. ‘피리’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다.’라고 말하는데, ‘불다’라는 말은 ‘나팔을 불다.’, ‘풍선을 불다.’, ‘휘파람을 불다.’라고 할 때도 쓰인답니다.

여러분,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세종대왕은 박연에게 음을 맞추는데 필요한 악기를 만들라고 했지요. 그 악기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편경이에요. 세종대왕은 박연에게 모든 악기의 중심이 될 만한 악기를 만들도록 했어요. 박연은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편경’을 만들고 궁중음악을 정리했어요. 원래 중국의 악기였던 편경을 우리의 음률에 맞춰서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지요. 중국의 음악과는 구별되게 악보도 정리하고 악기도 손보아서, 조선의 독자적인 음악을 만드는 데에 성공했지요. 이렇게 박연은 조선의 궁중음악을 크게 발전시켰답니다. 박연과 세종대왕의 궁중음악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조선의 음악을 세운 박연’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박연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 연주에도 관심이 많았지요. 과거시험에 합격한 박연은 궁궐에서 쓰는 악기와 연주 음악을 관리하는 나랏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기를 더 좋게 만들고 악보도 만들어 우리나라 음악을 크게 발전시켰대요. 여러분도 박연처럼 좋아하는 악기가 있다면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여,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